

영화 '1987' 김태리 “이름값 센 선배들과 작업, 배우의 시간”

▶12면

배우 김태리는 작년 데뷔작인 영화 '아가씨'에서는 하정우 조진웅 김민희와 호흡을 맞췄고, 두 번째 작품인 '1987'에서는 김윤석 유해진 하정우 강동원과 교감했다. 모두 대작이고, 유명 배우들이다. 신인으로서 떨릴 만도 하지만 그는 “센 선배들과의 작업이 오히려 좋다”며 웃는다.



조영욱

‘특급 유망주’ 조영욱
서울 유니폼 입는다

대학 1학년 불구 장래 위해 조기 프로행

본지
단독

대학무대 최고의 공격수로 꼽히는 조영욱(18·고려대)이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향후 진로를 놓고 고민을 거듭한 끝에 조기 프로행을 선택했다. 행선지는 K리그 클래식(1부리그) FC 서울이 유력하다.

복수의 축구계 관계자들은 “조영욱의 프로진출 문제를 두고 고려대 측이 만류 입장을 고수했지만 결국 선수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몇몇 구단이 영입 경쟁을 벌이는데 현재로서는 서울행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조영욱은 이승우(19·베로나), 백승호(20·페탈라다) 등과 함께 차세대 국가대표 공격수로 평가받는 특급 유망주다. 막내로 출전한 6월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서 장광한 선배들을 제치고 원톱으로 나설 만큼 잠재력을 입증 받았다. 신체조건(178cm·73kg)은 뛰어나지 않지만 폭발적인 스피드를 앞세운 공격력이 최대 무기다. 여기에 타고난 골 감각까지 지녔다. 각 연맹별 대표팀을 통해 차근차근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고 있는 이유다.

진가는 본격적으로 태극마크를 단 지난해부터 뚜렷하게 드러났다.

조영욱은 10월 아시아축구연맹(AFC) U-19 챔피언십 본선에서 2골을 터뜨리며 맹활약했고, 11월 U-19 컨티넨탈컵에서도 최전방 공격수로 나와 우승을 이끌었다. 이러한 성적을 바탕으로 지난해 대한축구협회 시상식에서 올해의 영플레이어상을 받았다.

대학 무대에서도 능력 발휘가 계속됐다. 부동의 스트라이커를 맡아올해 U리그 12경기에 출전해 6골을 기록하면서 고려대의 2년 연속 왕중왕전 제패에 힘을 보탰다. 현재는 U-23 대표팀의 일원으로 내년 AFC 챔피언십을 대비한 전지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안산초~구산중~연남고를 거친 조영욱은 특정 구단의 유스팀 출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가가 더욱 높았다. 이미 주전 수문장 송범근(20·전북 현대)의 조기 프로행으로 전력이 약화된 고려대는 조영욱이 아직 1학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학교에 잔류하기를 바랐지만, 프로 진출을 원하는 선수의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양현종 - 김주찬 연내계약 무산...왜?

양-총액 합의·옵션 이견

김-계약기간부터 신경전



김주찬 / 김현종

2017년 KBO리그 챔피언 KIA의 캡틴 김주찬(오른쪽)과 우승 일등공신 에이스 양현종의 재계약이 순탄치 않은 분위기다. 당초 예상과 달리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스포츠동아 DB

두 선수 KIA에 애정...결별 가능성 희박
조계현 단장 “신년 초부터 협상 재개할 것”

“큰 문제는 없다.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며 구단과 선수 모두 낙관했다. 이르면 크리스마스 이전, 늦어도 연말까지는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성탄 선물은 없었고, 연내 계약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올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 통합우승에 성공한 KIA가 오프시즌의 가장 큰 난제인 에이스 양현종(29)과 프리에이전트(FA) 김주찬(36)의 계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2017년을 마무리할 듯하다.

양현종은 지난해 FA 자격을 얻고 해외 진출을 추진하다 돌아와 KIA와 1년 22억5000만원(계약금 7억5000만원, 연봉 15억원)에 계약했다. 그러면서 올 시즌 후 재계약을 하기로 했다. 양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총액을 포함해 큰 틀에서는 대체적으로 합의점에 이르렀지만, 옵션 부분에서 이견이 발생해 도장을 찍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현종은 13일

열린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팬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예상보다는 협상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

구단에서는 “무리한 수준의 옵션 조건이 아니다”고 말하지만, 양현종 측은 “지난해 계약할 때 구단의 입장을 이해하고 다 따르지 않았느냐”며 이번엔 구단에서 제시한 옵션 조건에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

협상 초기에는 양현종과 구단 협상 실무자가 직접 대화를 했지만, 이후 에이전트가 구단과 만나 협상을 이어왔다. 현재 양현종이 새롭게 단장에 선임된 조계현 단장에게 “단장님을 직접 만나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의사를 전한 상태다. 조 단장이 이번 주에 서울에서 업무를 볼 일이 있어 연말에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세부조율을 마치고는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그래서 “연말에 생각을 정리해 신년 초 업무가 시작될 때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양 측의 견해다.

FA 김주찬과 협상은 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계약 기간부터 양 측이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구단에서는 2+1년을 제시하면서 “올 시즌 주장을 맡아 우승까지 이끈 공로를 인정한 제안”이라는 입장이다. 내년이면 한국나이로 38세가 되기 때문에 합리적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김주찬 측은 “나이 때문에 작년과 올해 성적이 내려간 것도 아니고, 오히려 KIA 이적 후 5년 동안 승리여도는 야수 중 가장 높지 않았느냐”며 보장 기간을 늘려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구단과 선수가 아직 협상 과정에서 큰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양현종이나 김주찬 모두 KIA에 대한 애정이 크기 때문에 구단 행사에도 꼬박꼬박 참석해 왔다. 구단도 이들과의 결별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양현종의 옵션과 김주찬의 계약기간. 양 측의 쟁점이 어떻게 해결될지 지켜봐야할 듯하다. 조계현 단장은 26일 “그동안의 협상 과정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올해 안에 모든 계약 문제가 해결돼 신년에 새롭게 출발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만 쉽지 않게 됐다”면서 “그래도 어려운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구단과 선수가 순리대로 풀어 가면 해결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재국 전문기자 keystone@donga.com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7-4677호(2017.10.17)

Cigna 라이나생명



- ☑ 암에 걸리면 실직할 수도 있잖아요?
- ☑ 치료비가 훨씬 비싼 암도 있다던데?
- ☑ 60세 넘어 암 걸리는 사람 참 많거든?



그래서,
저 박상원과 라이나생명이
든든한 암 보장을
선언합니다!

[라이나생명(무)플러스암보험(갱신형)]

암, 치료법이 좋아지는 만큼 대비해야 할 비용도 늘었습니다.
비급여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도 생각한다면 든든한 보장의 라이나플러스암보험에 지금 전화주세요!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박상원 / 생명보험판매자격 보유

• 본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암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임 • 기존보험 계약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람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

24시간 무료상담신청
지금 전화 주세요
080-015-9900